

## 조선후기 여자속옷에 관한 연구

윤 현 진<sup>†</sup> · 조 우 현<sup>\*</sup>

S DFA 전임강사<sup>†</sup>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디자인학과 교수<sup>\*</sup>

### A Study on the Women's Underwear in the Later Chosun Dynasty

Hyun-Jin Yoon<sup>†</sup> · Woo-Hyun Cho<sup>\*</sup>

Instructor, full time, S DFA<sup>†</sup>

Prof.,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sup>\*</sup>

(2004. 10. 15. 접수; 12. 1. 채택)

####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women's underwear culture in the Later Chosun Dynasty, by investigating the kinds and constructions of them, which formed bulky and puffed silhouette of the lower half of the body.

In the middle 17th century in Chosun, Confucianism settled down as fundamental idea of society, while whole country achieved considerable economic growth. As a result for upperclass women, female virtues was demanded more than any other period in Chosun. On the other hand, lower-class women including Kisaengs, had more freedom on their cloth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literature on women's dress institutions and restrictions of the extravagance, the use of kinds of high-quality silk and false hair was criticized, compared to women's clothes in China. From this, one can see the luxury and affluence of women's clothes at that time, which also reflected in luxurious underclothes. Also, the movement of class, by economic development, led to changes in the costumes of middle-to-lower class women, relaxing restrictions on clothes.

Underclothes included Bosomband(가슴띠; long sashes for bosom to wrap), Sokjucksam(속적삼), and Sökchogori(속저고리; Korean blouse, worn under the chogori) for upper garment, and Darisokkok(다리속곳; basic underwear like the panty), Soksokkot(속속곳; underwear paji to be wide of hem), Sokpaji(속바지; trouser front and back opening), Tansokkok(단속곳; large size underwear like Soksokkot), Noronpaji(너른바지; paji like the skirt or paji bulky than tansokkot), Mujigi부지기; tiered skirt for underwear), and Daeshumchi'ma(대습치마; Korean underskirt, shape hem as a pad into form) for lower clothes.

**Key Words:** women's underwear Bosomband(가슴띠), Sokjucksam(속적삼), Sökchogori(속저고리), Darisokkok(다리속곳), Sosokot(속속곳), Sokpaji(속바지), Tansokkok(단속곳), Nörünpaji(너른바지), Mujigi(부지기), Daeshumchi'ma(대습치마)

## I. 서론

속옷은 겉옷과 함께 착용자의 미적 물리적 감각을 담아 사회와 시대를 표현하는 문화이다. 복식착용에서 속옷은 겉옷에 가려진 부가적인 요소이나, 속옷의 형태와 착용방법에 따라 겉옷의 실루엣과 착용감이 다르게 형성되므로 속옷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중요하다.

동양 여러 나라의 의복은 일반적으로 평면구성이며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형태로서 겉옷에 대한 속옷의 역할이 서양보다는 소극적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여성복식에서 하체를 부풀리는 인위적인 조형을 확립할 수 있다. 다만 비슷한 시기의 코르셋(corset)과 파니에(panier) 등의 서양속옷이 인체를 극도로 과장하거나 축소시키는 인위적인 실루엣을 만들었으나, 조선후기 여자속옷은 착용의 곁집에 의한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선을 만들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속옷은 사회의 단면을 표현하며 그 시대의 조형의식이 내재된 여성의 심층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로 여성 속옷에 관한 연구는 흥미 있는 과제이다. 그간 서양 여자속옷의 관련 연구에 비하여 동양권 속옷의 연구는 미비하였다.

특히 조선중기 이후 난숙한 유교 문화속에서 조선의 속옷은 다양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으며, 선행 연구로는 속옷으로 착용된 여자 바지류에 관한 것<sup>1)</sup>과 1900년대 초반 여성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한 조선시대 속옷연구<sup>2)</sup> 속옷을 포함하는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여자속옷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은 많지 않지만 15세기부터 출토유물에서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하체를 부풀리는 형태가 두드러지는 시기인 17세기 중반이후에 여자들의 풍속을 소재로 한 풍속화에서 여자복식문화를 엿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17c이후에서 개화기 직후인 1900년대 초반까지의 여자속옷에 관하여 그 종류와 형태, 착용법 등을

정리하였다. 연구자료는 관련문헌, 유물조사, 풍속화 및 세계속옷역사전<sup>3)</sup>의 작장사진의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 후기의 하체를 부풀리는 실루엣을 형성한 여자 속옷의 종류와 구조를 고찰함으로써 당시 여성들의 속옷 문화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동양복식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현대패션에서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함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조선시대 속옷의 개념과 속옷문화

### 1. 속옷의 개념

“겉옷 속에 입혀지는 옷”,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이라는 속옷의 개념에 대하여 시대와 나라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현대적인 속옷의 개념은 20세기에 성립된 것으로, Fairchild's 복식사전의 정의를 보면 언더가먼트(undergarment), 언더웨어(underwear), 언더클로스(underclothes)는 피부 바로 위에 입혀지는 옷으로 집합적인 여자 속옷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란제리는 슬립(slip), 나이트가운(night gown), 팬티(panty), 브래지어(brassiere)를 포함하며 이외에 콤비네이션(combination), 코르셋(corset), 파운데이션(foundation), 테디(teddy), 페티코트(peiticoat)등을 속옷으로 정의하고 있다.<sup>4)</sup>

서양의 경우 Cunnington은 “속옷은 관찰자로부터 완전하게 또는 대부분이 숨겨지는, 남녀에 의해서 입혀진 의복 모두를 포함하며 스타킹과 같이 애매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은 제외하고 나이트 드레스(night dress), 나이트 셔츠(night shirt) 등 잠옷은 속옷에 포함하였다. 후프(hoop)나 버슬(bustle)같은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치는 역시 정확하게 의복은 아닐지라도 속옷의 개념에 포함”하였다.<sup>5)</sup>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전<sup>6)</sup>에서 속옷을 “속에 입는 옷의 총칭 속옷의 용도는 겨울의 방한용, 여름의 땀받이용, 옷의 자태를 우아하게 보이기 위한 맵시용, 내외법(內外法)에 의하여 생겨난 내외용(內外用)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겨울의 추위를 막기 위한 속옷이 요구되어 방한용 위주로 발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속옷이 아주 다양해졌는데, 남자

<sup>1)</sup>Corresponding author ; Hyun-Jin Yoon

Tel. +82-16-393-1592, Fax. +82-32-865-8130

E-mail : uriot@korea.com

용으로는 상의인 속저고리 또는 속적삼, 하의인 잠방이가 있었다. 여자의 경우는 맵시용뿐만 아니라 내외용·땀반이용 등으로, 다른 민족복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속적삼, 가리개용 허리띠, 다리속곳, 속속곳, 속바지, 단속곳, 대습치마, 무지기, 너른바지 등이 있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선시대 속옷은 기후와 한복의 구성상 여러겹 끼입어야 하는 복식의 구조면에서 겉옷과 속옷의 착의에 따라 속옷이 정의 될 수 있다. 겉옷과 속옷은 서로 대응하는 말로 겉옷은 외의(外衣) 또는 표의(表衣), 속옷은 내의(內衣), 내복(內服), 단의(單衣), 설복(褻服), 친의(襯衣)라 한다.<sup>7)</sup> 그러나 속옷의 의미를 엄격하게 구별하면 가장 피부와 닿는 내친의(內親衣)에 해당하는 속옷과, 겉옷과 내친의 사이에 받쳐 입는 중의(中衣)로서의 친의(襯衣)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속옷과 관련된 용어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여성속옷에 대한 개념을 기본복으로 착용하는 치마와 저고리 안에 착용하는 의복을 통칭하여 속옷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 2. 조선시대의 속옷 문화

조선시대의 중요한 가치인 예(禮)의 실천은 의관(衣冠)을 정제된 복식생활로부터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적으로 여성의 전통적(傳統的)인 생활상(生活相)을 성리학(性理學)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려 하였고, 이는 복장문제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여자들이 출입시 얼굴을 가리고, 또 지붕이 있는 가마 혹은 말을 탐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한 것은 유교적 예제에 의해 요구되어진 일이었다. 내외법(內外法)은 남녀간의 자유스러운 접촉을 금하는 행동 규제법(規制法)으로, 여자는 임의로 문 밖 출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까운 친척 외의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법의 내용이다. 여성들이 평상복으로 신분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하였으나, 외출시에는 외간 남자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쓰개치마, 너울등을 착용하였다. 이렇듯 당시의 지배층들이 여자들의 생활을 철저히 폐쇄적(閉鎖的)으로 한 의논은 물론 그들이 유교적인 의미에서의 정절을 여자들이 지켜야할

최우선적인 덕목으로 간주하였고, 이러한 사회의 윤리관은 정숙성(靜淑性)을 강조하는 중첩성(重疊性)의 다양한 속옷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겉옷에 의해 가려진 속옷은 겉옷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요소이나 속옷도 개인의 미적 욕구는 물론 사회의 윤리관(倫理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살을 절대로 타인에게 보여서는 안되는 당시의 관습”<sup>8)</sup> 때문에 신체를 은폐하기 위한 정숙성을 수반하는 다양한 하후성의 속옷이 착용되었다. 속옷이 남성복식에서보다 여성복식에서 더 다양함을 보이는 것은 여성들에게 폐쇄된 생활을 강요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실증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중·하층에서는 산업과 경제의 발전과 함께 자유를 추구하는 성(性)을 매개로 자유로운 활동이 전개하면서 하층 여자에서부터 내외법(內外法)이 서서히 무너져갔다. 양반 지주에 이어 새로운 양반 작인이 등장하고, 서민 지주와 부농(富農)의 성장에 맞추어 한 편에서 빈농과 임노동자(賃勞動者)가 나타났다. 천민과 노비가운데에서도 재력을 바탕으로 양반으로까지 신분 상승한 자들이 나타났다. 물질적인 풍요시대라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역관·중인등 돈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들었고, 이들의 일부의 생활은 소비적이고 유희문화에 빠져 기방을 장악하기도 했다.

당시 여성들의 복식에서 외출시 쓰개치마로 가려야 했던 통례가 가채 위에 쓰개치마를 접어 묶어 올리는 약식으로 대체되고, 길이가 짧은 저고리의 유행으로 가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등 풍속의 변화는 여성에 대한 통제의 도덕률이 느슨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여러 종류의 속옷착용과 치마 밖으로 속옷을 노출하는 착용모습의 등장은 속옷을 겉옷만큼 중요한 복식으로 인식하여 부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이러한 복식행동은 특히 기녀를 중심으로 우선 표출되어 당시의 짧은 저고리, 가슴띠, 속옷이 보이는 거들치마 등과 함께 이전에 비하여 과감하여진 자유분방함을 보여주게 되었다.

또한 기녀들의 복식이 사회 모든 계층의 여성들에게 유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계급 변동이란 거대한 사회적 변화가 존재하였으며 중인 계층이 기

방에 출입할 수 있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인 계급이 지방에 드나들자 사대부와는 달리 기녀들에게 남편을 빼앗기기 싫은 서민 여성들이 뒤이어 기녀의 복식을 차용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sup>9)</sup>

### Ⅲ. 조선후기 여자 속옷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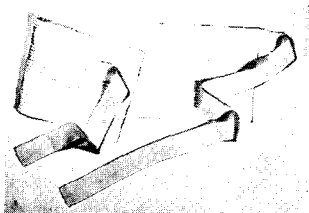
조선후기 여자속옷의 종류를 상의(上衣)와 하의(下衣)로 분류하였다. 상의(上衣)는 가슴띠와 속적삼 그리고 속저고리로 상체에 착용된 것이다. 하의(下衣)는 다리속곳, 바지류(속속곳, 속바지, 단속곳, 너른바지), 치마류(무지기, 대습치마)를 포함한 것으로 이들의 착용위치는 허리와 가슴부분에서 이루어지나 하체(下體)중심으로 착용된다.

#### 1. 상의

가슴띠는 가슴둘레에 착용되어 상체(上體)인 가슴을 가려주고, 속적삼은 어깨를 덮는 가장 안의 옷이다. 속저고리는 겹저고리의 안에 착용되는데, 겨울에는 방한용(防寒用) 속옷이 된다.

##### 1) 가슴띠

가슴띠의 명칭은 문헌상에서 찾을 수 없으나, 주로 가슴주위에서 착용되어 가슴띠라 명명하였다. 가슴띠는 유희경의 『韓國服飾史研究』의 가리개용 허리띠와 같은 것으로, 여자복식에서 허리띠는 의례용(儀禮用) 대대(大帶)외에 일할 때와 외출시 옷이 흘러내리지 못하게 매는 허리띠와, 살을 절대로 타인에게 보여서는 안되는 당시의 습관 속에서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저고리와 치마사이의 겨드랑 밑을 가리기 힘들게 되자 그 가리개 역할을



〈그림1〉 가슴띠, 속옷, p.12



〈그림2〉 연소담청(부분)  
신윤복(18-19C), 간송미술관 소장

하기 위해 생겨난 허리띠가 있다. 속옷으로서의 가슴띠<그림1>는 가리개 역할을 하는 가리개용 허리띠를 말한다. 그러나, 저고리가 짧아지면서 보여지는 가슴띠가 오히려 허리부분을 노출하게 되어 가슴을 가리는 목적보다는 허리-가슴 사이를 강조하는 기능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풍류를 즐기고 있는 신윤복의 <그림2>에서 말을 타고 가는 두 여인에서 가슴띠 착용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풍속화에 나타난 여인의 신분은 기녀로 길이가 짧은 저고리와 치마 사이에 넓은 가슴띠로 감싸고 있는데, 허리가 강조되어 보인다.

가슴띠 착용법은 옷을 입기 전 맨살에 겨드랑이 밑으로 바짝 치켜서 가슴을 납작하게 눌러매어 살을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 2) 속적삼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 삼아(衫兒)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것이 속적삼이다. 삼아에 대하여 『박통사언해』에는 ‘적삼’으로 언해되어 있고, 『역어류해』에는 삼아를 한삼(汗衫)과 뜻이 같다고 하여 ‘삼 바기적삼’으로 언해하고 있으며, 영정조대 이의봉의 『고금석림(古今釋林)』중 『동한역어』에는 ‘적삼은 면포를 사용한 홀의 옷으로 작게 만든 속옷을 적삼이라 부른다’<sup>10)</sup>라 하여 두 책 모두 삼아(즉 적삼)를 속옷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조선후기 여성의 속적삼은 홀으로 된 안에 입는 저고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형태는 저고리와 같으며 치수는 저고리보다 작은 것이다. 속적삼이 겹옷화된 적삼은 여름용 홀저고리로 모양은 저고리와 같고 단삼(單衫)이라고도 한다. 바느질을 박이로 하며, 저고리 대용으로 입는 옷인데, 홀으로 만든

고름을 달기도 하나 대개 단추를 많이 사용한다.

### 3) 속저고리

양반가의 부녀들이 삼복더위를 제외하고는 저고리 밑에 반드시 속저고리를 껴입었고, 추울 때는 방한용을 겸하는 구실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속저고리는 속적삼과 같이 겹저고리의 영향을 받고, 속저고리라는 용어도 저고리와 같은 형태이나, 겹저고리 안에 착용되어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sup>12)</sup>

저고리는 근세이후의 단상의(短上衣)를 말하고, 저고리란 말의 최초 문헌은 근세 초기의 것으로 조선조 세종 2년(1420) 원경왕후(元敬王后) 천전의(遷奠儀)에 「紅段子 赤古里」이라 한 것이다.<sup>13)</sup>

삼작저고리라 하여 속적삼, 속저고리, 저고리를 착용하였다고 하는데, 삼복더위를 제외하고는 저고리 밑에 반드시 속저고리를 껴입었다고 한다. 보통 겹저고리로 하는데 추울 때는 얇게 솜을 두기도 하였으며 흔히 분홍색 명주로 하여 속적삼 위에 입었는데 속적삼보다는 넉넉하게 하고 겹저고리보다는 약간 작게 하였으며, 고름은 좁고 짧게 다나, 고름을 매어서 늘어뜨리지 않고 매어서 앞깃 속으로 찢러 넣어 저고리 밑으로 보이지 않게 하였다.<sup>14)</sup> 속저고리는 겹저고리의 길이에 따라 겹저고리보다는 길이를 짧게 하여 변했을 것이다.

## 2. 하의

하의는 크게 다리속곳, 바지류, 치마류로 분류할 수 있다. 바지류에는 다리속곳, 속속곳, 속바지, 단속곳, 너른바지가 있고, 치마류에는 부지기, 대습치마가 있다.

다리속곳은 가랑이를 감싸고 양옆으로 다리가 나온 후 허리에서 착용되며, 속속곳은 다리속곳 다음에 착용되고, 그 위에 속바지, 단속곳, 너른바지와 속치마를 착용한다. 이들 모두는 허리에서 착용되나 다리부분을 감싸는데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파지(把持)라는 용어는 1705년경을 전후하여 남자의 바지를 기록한 것으로, 여자바지는 조선조 후반기에 주로 리의(裏衣)로 표기하였고, 조선조 말에 이르러 현대의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

《양서(梁書)》, 《남사(南史)》의 〈신라전(新羅傳)〉에서는 고(袴)를 가반(柯半)이라 하였고, 《오주연

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는 남녀별로 채구와 식량이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옷감의 치수를 변증하면서 고(袴)·단고(單袴)·광단고(廣單袴)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때 보통 고는 겹바지를 의미하며, 단고는 홑바지로 고보다 약간 길이가 짧은 속바지, 광단고는 홑바지이나 바지통이 넓은 것이다.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는 가배(珂背)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며, 《도지정례(度支定例)》, 《국혼정례곤(國婚定例坤)》,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 겹리의(袂裏衣), 단리의(單裏衣)의 구분이 있어 리의의 재봉방식에 따라 홑과 겹이 있고, 단지 리의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홑을 말한다. 또한 말군(襪裙)도 국혼정례(國婚定例)에 말군, 단말군(單襪裙)의 표기가 있어 보통 말군이라 함은 겹말군(袂襪裙)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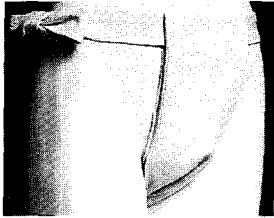
영친왕가의 의대발기(衣襪發記)와 영친왕 가례시 태자빈의 단의대발기(單衣襪發記)에 단속곳, 겹바지, 단바지의 표현이 나오는 점으로 보아 1900년대에 이르러서야 여자 속옷의 이름이 불리워지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sup>15)</sup>

### 1) 다리속곳

다리속곳은 내곤(內褌)이라고 하며 한복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속옷이다. 다리속곳의 명칭에서 “속곳”이란 용어는 조선후기에 생겨난 용어이므로 다리속곳 또한 조선후기에 붙여진 이름이라 생각된다. 다리속곳 형태의 기원이라고 여겨지는 〈안악 3호분의 手搏戲〉과 〈부용총의 手搏戲〉천경받침에 나타난 인물의 짧은 팬티와 같은 형태가 이에 속한다.

박춘순의 “바지의 문화사”에서는 요의(腰衣 : Looin-cloth)는 1조각으로 구성된 대형(帶形)와 요권형(腰卷形)으로, 2조각으로 구성된 전수형(前垂形)과 다리속곳形으로 나누었으며, 다리속곳形의 요의(腰衣)는 허리끈과와 사각형 천조각으로 구성되어 사각형포를 뒤근에 고정시키고, 다리사이를 지나 앞허리에 돌려 나머지를 앞에 그대로 늘어뜨리는 형태라고 하였다.

다리속곳<그림3>은 2조각의 천을 꿰매어 허리에서 묶도록 한 것이다. 즉, 홑겹의 긴 감을 허리띠에 달아 차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자들의 필수품



〈그림3〉 다리속곳-기저귀형, 속옷, p.17

으로 다리속곳과 비슷하나 아기기저기와 같은 형태의 월경포가 있다. 월경포는 서답, 개집, 기저귀, 빨래, 걸레 등으로 부르기도 했으며, 여름용은 삼베, 기타 계절용은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헌옷을 뜯어 적당한 크기로 접거나 등성등성 누벼 사용하기도 했다.<sup>16)</sup> 몸에 꼭 맞게 고정되고 밑을 두텁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접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다. 세탁후 함부로 넣어 말릴 수 없어 아기기저기와 함께 널거나 그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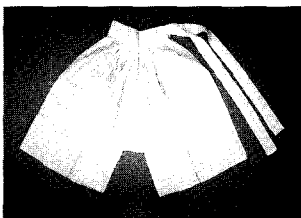
2) 바지류

(1) 속속곳

유물에서는 형태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속속곳과 단속곳의 구분이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기능상으로 속속곳은 다리속곳 위에 착용되나 피부와의 접촉이 더 많기 때문에 피부에서의 분비물을 흡수하고, 속바지를 착용시 속바지의 공간을 채워 주어 속바지의 형태를 만들어 준다.

그 형태는 앞뒤가 밑이 막힌형으로 옆으로 여밈을 따로 내었으며, 부리는 넓고, 전후에 삼각형의 밑[襠]이 있다.<그림4>

속속곳은 한 쪽 다리를 넓게(대부분 오른쪽 바지



〈그림4〉 속속곳, 속옷, p.18

통)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용변시 벗지 않고도 단속곳의 부리-속바지의 트임-속속곳의 부리를 통하

여 요강을 넣었기 때문이다.

속속곳의 소재는 살이 닿는 부분이 많았으므로 대개는 옥양목, 무명, 광목등의 무명으로 만들었고 약간 고급의 소재로는 명주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여름에는 통풍이 잘되는 베나 굵은 모시, 광당포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겨울에는 굵은 면포를 사용하였다. 특히 무명은 땀을 잘 받아들이고 통기도 잘 되며, 빨래하기가 쉽고 질기며 보온도 잘 되므로 가장 위생적이고 경제적이었다고 한다.<sup>18)</sup>

(2) 속바지

속바지는 허리통보다 더 넓은 부리의 속곳류의 바지와는 달리 배래가 곡선으로 되면서 발목으로 좁아지는 형태로 바지통이 넓은 속속곳은 바지 속에 구겨져 들어간다. 부리가 좁아 아랫부분 또는 뒤에 트임 이 있다.<sup>19)</sup>

박춘순의 『바지문화사』에서는 속바지를 재봉상태에 따라 겹바지, 솜바지, 누비바지로 분류하며, 트임의 형식에 따라 밑이 트인 형, 밑이 막힌 형으로 분류하였다.<표1><sup>20)</sup>

밑이 트인 형태의 경우에는 사각형 밑[襠], 삼각형 밑이 있고, 또한 이중에는 따로 여밈을 옆으로

〈표1〉 바지의 분류와 명칭

형식	분류		다른명칭	
재봉 형식	홀바지		고쟁이, 중우, 주우, 주	
	겹바지	솜바지	바 지	
		누비바지		오래바지
				오망바지 실렁바지
트임 형식	밑트인형	사각형 밑	토시느제	
		삼각형 밑	갈모느제	
	밑터진형	남자바지형상		

낸 것이 대부분이나. 뒤터짐을 여밈으로 사용한 바지도 있다. 사각형 밑은 폭을 연장한 것이며, 바지의 삼각형 밑은 바느질이 터지지 않도록 작은 정사각형 형꼴조각을 접어 삼각형으로 만든 다음 바지가랑이의 안쪽에 댄 것이다. 그리고 밑이 막힌 형태의 바지는 남자바지의 형상을 하고 있다.<sup>21)</sup>

밑[襠]을 ‘느제’ 라고도 하는데, 형태가 직사각형인 것은 토시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토시느제’, 삼각형인 것은 갓 위에 덧쓰던 갈모와 비슷하

다고 하여 ‘갈모느제’라고 하여 구별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바지는 겹으로 만든 것과 홑으로 만든 것을 구분하여 불렀는데, 겹으로 만든 것을 바지라고 하고, 홑으로 만든 것을 고쟁이 또는 중우, 주우, 주라고 했다. 겹으로 만든 바지는 봄·가을용으로 무명이나 명주가 많고 겨울용은 솜을 두어 누비기도 했다. 겨울용 누비바지 중에는 올따라 누볐다고 하는 올래바지가 있었고, 좁게 누빈 오망바지, 넓게 누빈 실령바지등이 있었다. 또 다리부분은 좁게 누비고 허리부위는 넓게 누빈 것도 있었다.”고 한다.<sup>22)</sup>

상대(上代)에는 남녀 모두 바지를 입었고, 여자는 바지와 치마를 함께 착용하기도 하였으나 바지만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의 여자바지는 치마속에 입던 속옷으로서 허리, 폭으로 연결된 바지통, 밑과 주름이 있으며, 허리끈으로 구성되어 마루폭, 사폭, 허리로 이루어진 남자바지와 형태적인 차이가 있다.

바지가 여자들의 속옷으로 착용된 것은 조선 여인들의 활동성과도 관계가 큰 것으로 동양문화권에서 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노동에 종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활동하는 남자를 상징하기도 했다.<sup>23)</sup>

서민여성들은 주로 통이 좁은 바지를 입었고, 밑단을 접거나 끈으로 묶었다서민여성 외에도 풍속화에는 다른 계층의 여성이 바지를 노출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녀신분으로 양반계층과 같은 종류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으나 외출시에 바지를 노출한 모습이다. <그림5>는 전모를 쓰고 치마를 허리에서 고정시켜 무릎약간 아래까지 노출하여 통이 좁아지는 바지가 노출되었고 <그림6>에서는 벌어진 치마 사이로 뒤트임이 있는 속바지가 보인다.

속바지는 재봉형식에서 홑바지, 겹바지, 솜바지, 누비바지로 나뉘는데 이것은 계절에 따라 다른 것으로 소재에서도 여름에는 모시나 베 종류로 홑으로 하여 입었고 봄, 가을에는 명주로 겹바지를 지어 입었으며 겨울에는 명주에 솜을 두어 누비바지를 지어 입었는데 이 누비바지는 춘추용으로 많이 입었다.<sup>24)</sup>

누비바지는 두겹의 옷감사이에 솜을 두어 윗부분은 폭 넓게누비고 무릎 아래선은 곱게 누웠으며 곱게 누빈바지는 누비부분이 심지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누비 방법은 서양 속옷중의 하나인 빠니에르(pannier)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였고 솜을 넣어 보온의 역할과 함께 하후적 특성을 높여었다.

한국의 밑이 트인 바지 형태가 서양에서도 여성들이 착용한 예가 있기도 하다. 크리노린시대에는 드로어즈(drawers)와 판탈롱(pantalon)등에 관심을 보였고, 블루머(Amelia Jenks Bloomer)여사가 동양풍의 바지를 소개하면서 내의용 밑트인 바지가 보급되었다. 드로워즈는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도입된 풍성한 형태의 속바지이며 리넨(linen), 실크(silk), 울(wool)로 만들어 졌고, 밑이 트여있다.<sup>25)</sup>

또한 두꺼운 옷감으로 된 파팅게일이 입혀지게 되었는데 실용보다는 장식용으로 승마시에 사용되었다.<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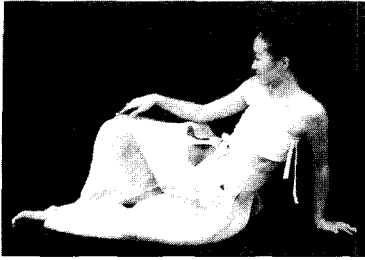
경상도 안동의 민속복으로 살창고장주의, 살창고쟁이 또는 다리고쟁이라고 하는 베모시 4폭을 한쪽 가랭이로 만든 통 넓은 단속곳과 같은 바지가 있다.<그림7> 살창고장주의는 허리의 주름분을 둥근 타원형으로 구멍을 내어 말기에 달고 시접은 곱게 말아 감치어 바느질하여 구조상으로 허리 주변에 창을 내어 착용시에 속살이 보이는 형태로 통



<그림5> 전모를 쓴 여인(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6> 기방무사(부분), 간송미술관 소장



〈그림7〉 살창고쟁이 착용도  
19th International Costume Association(ICA) Congress

풍이 잘 되도록 만든 속옷이다. 흔히 삼베나 모시로 만들며 여름에 통풍이 잘 되어 위생학적으로 이상적이며, 사용된 뽀뽀한 소재는 조선 후기 복식의 한 흐름이었던 하후적 착용모습에 빠니에르의 역할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살창고장주의는 시집살이를 시원하게 기원하여 이 옷을 신부에게 입혔다는 것과, 시집가서 새색시가 예를 갖추기 위하여 여러 벌의 속옷을 갖추어 착용할 경우 전체 옷의 착용량으로 오는 부담감과 더위를 줄이기 위하여 친정에서 입혀 보냈던 속옷이라 하여 고생스러운 시집살이를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기온이 높은 계절에 더위를 덜기 위해 고안한 과학적인 바지로서, 외출이 잦지 않는 노인들 사이에서도 한 여름에 이 살창고쟁이 하나만을 입기도 하였다고 한다.<sup>27)</sup>

### (3) 단속곳

내의(內衣) 즉 속옷의 용어는 고의(袴衣), 리의(裏衣), 바지 등으로 불리웠는데, 속곳·단속곳 등은 조선후기의 우리말 표기로 된 호칭으로서 속곳의 용어는 裏衣·속옷·속곳으로, 단속곳은 單裏衣·단속옷·단속곳으로 불려진 것이다.<sup>28)</sup>

단속곳은 속바지 위에 착용되어 반가(班家)에서는 상시 착용하기도 했지만 서민층에서는 혼례때와 같이 성장을 할 때 입었던 옷이기도 하였다.

속바지와 같이 밑의 형태에 따라 명칭이 분류<sup>29)</sup>

되어 삼각형밑의 갈모느제 속곳과 사각형밑의 토시느제 속곳이 있다. 서민 부녀자들에게는 단속곳을 가장 길에 착용하여 이 위에 치마를 입기도 하였기 때문에 서민들 사이에서 겹속곳이라 불려지기도 했다.<sup>30)</sup>

단속곳을 살펴볼 수 있는 풍속화로는 <그림8>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 여인이 다리를 세우고 거울을



〈그림8〉 미인화장 美人化粧  
김홍도 전, 서울대학교박물관소장

보고 있는 모습에서 올려진 치마 밑으로 단속곳이 보인다.

단속곳은 치마 아래에 착용되기 때문에 길이는 치마보다는 약간 짧고 바지보다는 길었으며, 형태는 속속곳과 같고 허리부분에 말기가 달려있다. 겉으로 노출되기도 하여 부드럽고 좋은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겹이나 누비로 구성된 경우가 있는데,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모시, 태사, 아사, 향라, 생고사, 생노방 등을 사용하여 홑으로 하였으며 겨울에는 명주, 삼팔, 자미사 등으로 하였다. 색은 주로 흰색을 사용하였으나, 나이든 사람들은 옥색이나 회색을 입기도 하였다.<sup>31)</sup>

### (4) 너른바지

너른바지의 명칭은 후기에 생겨난 것으로 문헌에서는 그 변화모습을 찾을수 없고, 『韓國傳統服飾史研究』에서 고복남은 명주솜너른바지를 명주유광파지(明紬襦廣把持)라 표현하였다. 바지통이 넓은 단속곳을 넓은바지라 지칭한 것이 넓은바지에서 너른바지로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너른바지는 단속곳의 일종으로 주로 상류층에서 정장할 때 하체를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밑받침 옷으로서 단속곳 위에 착용하였다. 서민층에서는 이와 같은 너른바지를 착용하지 못하였고 오늘날에 있어서 옛 풍습을 찾는 가정에서는 혼수에 이를 넣어주기도 한다.<sup>32)</sup>

너른바지라고 명명되어 연구 발표된 자료로 전기 金德遠公의 부인이 착용했던 1700년경의 명주솜너른바지와 석주선박물관소장의 무명솜바지가 있다.



2) 치마류

치마는 문헌에 상(裳) 또는 군(裙)으로 표현되어 있다. 世宗 2년 元敬王后 선전의(選奠儀)에 적고리(赤古里)와 적마(赤下)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터마”이고, 조선왕조 중기는 “초마”라 하였다. 조선 후기의 《한중만록(閑中漫錄)》에는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 삼간택(三揀擇)때 정경왕후가 내린 물복에 「眞紅 오호포 文段치마」라고 있어 “치마”라고 표현되었다.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방(房)」字를 「형초마호」라 하였고, 「상(裳)」字를 「츄마상」이라고도 하여, 여기의 「초마」, 「츄마」는 「초~口」양자음을 가진 것으로 원래는 우리말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이며, 치마는 여기에서 변음된 것이라고 보아지기도 한다.

치마는 형태에 따라 의례용과 평상용으로 구별하여 의례용은 치마의 길이가 길지만 앞중심 부분은 짧게 처리하여 보행시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평상용은 치마주름이 넓고 길이가 짧다. 이러한 넓은 폭의 치마 안에는 바지류의 속옷 외에도 무지기 치마와 대슴치마를 착용하였는데 이러한 치마류는 겹치마를 보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가녀의 예복용 치마를 구분하여 겹치마인 대란(大欄)·스란(膝欄)치마, 속옷은 무지기, 대슴치마로 나누는데<sup>33)</sup>본 연구에서는 치마류 속옷인 무지기와 대슴치마로 나누었다.

(1) 무지기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卷之三十, 士小節 第六 婦依一 服食〉에는 “오고름과 치마끈을 풀어놓고 죄어 매지 아니한 것을 창피(昌披)라 한다. 요즘 부인들은 무색 치마를 즐겨 입어, 거의 과부가 입는 옷 빛깔과 다르지 않게 한다. 또는 짧은 흰 치마를 먼저 입고 나서 겹치마를 입는데, 무족오합이니, 무족칠합이니 하는 등의 이름이 있게 된다. 부인들은 사악스럽고 요사스런 말을 곧 잘하며 이런 상서롭지 못한 옷을 입으니, 대저 무슨 까닭인가?”라 하여, 무색의 짧은치마를 겹겹으로 착용한 내용이 있다.

이능화(李能和)는 《朝鮮女俗考》에서 이것의 주(注)를 “無足裳은 짧은데 差가 있어 이에 따라 되

(升)의 흡(合)과 같이 五合, 七合의 이름이 있는데 접은 단은 十合爲升식의 층을 두어 5, 6겹으로 접어서 무릎 가까이에서 위의 치마를 버티었다.”고 하였다.<sup>34)</sup>

무지기의 명칭은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는 “무족(無足)”,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무족상(無竹裳)”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아무리 많이 끼어 입어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그만큼 부녀자들은 이 속치마를 많이 겹쳐 입었으니, 부인들은 심여개씩, 그리고 짧은 여인들이라도 5~6겹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만큼 끼어 입고도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무색(無色)의 치마단에 빛깔이 각각 다른 여러 개의 치마를 짤은 것부터 차례로 한 말기에 달아 착용하기도 하였는데 무지개모양을 이루어 “무지기”라는 이름도 생겼다.

무지기는 특수복으로 상류계급에서 정장할 때 입어 붕긋하고 우아한 치마선을 전체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입었던 속치마로서 현대의 페티코트(petticoat)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무지기는 3층의 삼합무지기, 5층의 오합무지기<그림9> 7층의 칠합무지기가 있었으며, 가장 긴길이가 무릎아래 정도이며 다음 층과의 간격은 5~10cm였다. 주름은 단까지 주름을 세워 만든 것도 있고, 보통치마 같이 위에 주름만 잡아 하나의 허리에 층을 합쳐 달기도 하였으며 나이가 지긋한 사람은 분홍색 단색으로 층층이 물들이고 나이 젊은 사람은 단 마다 색을 다르게 하여 연두, 분홍, 노랑의 순서로 엮게 들였으며, 연뿔무지기라고도 하며 사계절에 모시를 사용하였다.



〈그림9〉 오합무지기, kosco전, p.22(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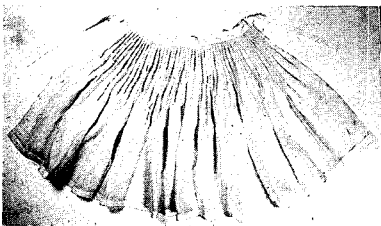
무지기의 착장은 치마의 착장과 같으며, 길이가 다른 치마를 여러 겹으로 포개 입어 허리이하의 배가 마치 독을 얹어놓았거나 종을 얹어놓은 것처럼

불룩하고 둥글게 보인다.

## (2) 대숨치마

치마의 용어에서 스란단을 한 층으로 댄 것은 스란(膝襴)치마, 스란단을 두층 붙인 것을 대란(大襴)치마라고 한다. 이는 예복용 걸치마는 치마에 수(繡)나 금박(金箔)으로 스란단을 만들어 치마에 붙인 것이다. 속옷에서 대숨치마는 장식단이 아닌 치마 밑단에 백비를 만들어 붙여 자연스럽게 퍼지게 하였다. 대숨치마는 궁중에서 여자들의 정장시에 착용했다고 하는데<sup>35)</sup> 예복인 원삼과 활옷의 착용시 대숨치마를 착용하여 걸치마인 대란(大襴)·스란(膝襴)치마의 란(襴)을 넓게 퍼지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였다.

“대숨치마”의 용어는 문헌상에는 구체적인 명칭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의궤에 등장하는 속옷의 용어로 “長赤尙, 單赤尙”가 있으나 대란·스란의 용어처럼 치마 밑단에 붙인 백비를 대숨이란 말로 표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10>



<그림10> 대숨치마, 개인소장

대숨치마의 구성은 모시 12폭으로 끌리지 않을 정도의 길이로 치마를 만들고, 창호지나 백비를 높이 3~4cm정도, 치마폭 길이에 모시로 싸고 이를 치마 아랫단에 붙이는 것이다.<sup>36)</sup>

치마를 착용할 때 허리는 무지기로 부풀리고 아래는 대숨치마로 부풀려 입었고 무지기 위에 대숨치마를 입으면 가슴에서부터 땅에 닿을 정도의 걸치마가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퍼져 정리되어 풍성하게 감싸주었다. 대숨치마의 백비는 서양의 후프 역할을 하여, 넓게 퍼진 치마의 밑단은 그대로 서도 앉은 것 같고 앉아도 선 것 같은 자세를 갖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이 서양의 낭만주의 시대(1820~1850)의 페티코트에서 나타난다. 스커트 아

랫 도련을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치마 도련 끝에서 안쪽으로 6~8인치 들어간 위치에 딱딱한 코드를 두른 먼직물의 페티코트가 고안되었다<sup>37)</sup>고 한다

## IV. 조선후기 여자 속옷의 특징

조선후기 여자 복식은 인체를 드러내지 않고 속옷과 겹옷으로 덮으면서 실루엣을 형성하면서도, 옷길이의 변화와 착장시 움직임에 따라 노출되는 속옷에 의해 서로 다른 조형미를 느끼게 한다.

하나의 사물에 대한 인상에 관하여 서로의 인상의 차이가 있으나 일치하는 평가의 가능성을 가지고 미를 평가하게 되는데 조선후기 여자속옷은 은폐와 노출의 상반된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 1. 기능적 특징

조선후기 여자복식의 기능적 특징은 속옷의 구조와 봉제, 그리고 소재 및 구성에서 나타난다.

#### 1) 구조

속옷의 구조에서 조선시대의 복식은 구조적으로 평면구성이며, 여러가지 속옷이 중첩되어 착용되었으므로 활동에 필요한 여유분을 트임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트임의 방법은 단순히 트는 수직 트임, 무와 병행하여 트는 것과, 주름과 병행하는 것, 부분적인 트임을 주거나 전체를 분리하는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38)</sup>

치마는 평면구성이면서 전개형으로 열려있는 것으로 허리에서 고정하지 않으면 바람에도 쉽게 열려져 속옷이 보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치마속에는 속치마가 있고, 바지류의 속옷이 있어 맨살이 쉽게 보이지는 않는다.

여자속옷의 바지류는 넓은 폭으로 되어 있고, 밑을 터서 좌우 대칭이 되어 싸이도록 하여 입을 수가 있으며, 트여 있더라도 살이 보이지 않는 관찰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속곳은 바지통이 넓어 트임이 따로 없이 허리에서 고정하더라도 부리가 트임이 된다. 삼각밑(襠)이나 사각밑(襠)을 두었고, 마찰이 많은 부분에 바느질을 튼튼하게 한다.

속바지는 가운데 트임을 하는데, 뒤만 트임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바지통은 넓으나 부리가 좁아 부리로는 트임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가운데 트임을 하여 기능성을 더한 것으로 본다. 바지통이 넓은 것보다 가운데 트임의 속바지가 활동성을 부여하여 많은 신분계층에서 착용되었다.

단속곳도 속속곳과 마찬가지로 바지통이 넓어 트임의 기능을 같이하고, 트임을 두더라도 앞은 막히고 뒤만 트임이 있다.

“고쟁이를 열두 벌 입어도 보일 것은 다 보인다”는 속담에서와 같이, 여러벌의 속옷을 착용하여도, 조선시대 복식은 형태에서도 긴트임과 넓은 폭을 가지고 있어 완전한 개방형의 형태를 가진다.

## 2) 봉재

속옷의 바느질은 홀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솔기의 시접을 튼튼하게 바느질한다. 실측조사한 유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솔기처리는 통솔과 가름솔 후 상침, 싸박기, 현재와 다른 곱솔이고, 홑질, 감침질, 반박음질을 사용하였다.

통솔은 피부와의 접촉이 많은 속바지의 배래와 속적삼의 배래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바지류은 폭을 그대로 연결하여 식서가 만나 홑질이나 박음질 후 가름솔로 하였으나, 홑솔 또는 가름솔로 하여 한쪽에만 상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것은 속속곳과 속바지, 단속곳, 너른바지, 속적삼의 옆에서 사용하였다.

감침질은 홀으로 구성된 속속곳, 단속곳, 속바지(누비포함), 속적삼에서 모든 단처리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재봉틀 사용시에는 접어 박음질하기도 하였다. 시접 길이를 다르게 하여 긴시접으로 감싼 후 한번만 박음질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의 싸박기인 박음질 후 한쪽 시접을 0.2~0.3cm 남기고 자른 후 나머지 시접으로 처음 바느질한 선을 박음질하는 형태와는 다른 바느질법으로 한번에 시접을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허리말기를 허리통과 연결시 한꺼번에 시침질로 연결하는 방법과 홑질 또는 박음질 후 뒤집어 감침질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두 번째의 방법에서 창구멍을 두고 허리아래를 바느질한 후 뒤집어 창구멍을 감침질하는 경우가 있었다.

## 3) 소재 및 구성

속옷의 소재와 구성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슴띠는 홀, 겹, 누비의 경우가 있다. 홀으로 모시나 무명등으로 여름용을 하며, 겹으로 걸은 명주나 더 좋은 소재를 사용하나 안은 주로 무명을 사용하여 흡수성을 고려하였고, 누비는 두겹의 옷감 사이에 솜을 두고 누비 겨울에 보온을 높이고 누비선에 의한 착시효과로 허리선을 가늘어 보이도록 하였다.

속적삼은 홀으로 주로 모시나 삼베, 무명을 사용하여 여름에는 겉옷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속속곳은 피부와의 접촉 면적이 많아 흡수성이 좋은 삼베나 무명 또는 부드러운 감을 사용하여 주로 홀으로 한다.

속바지는 홀, 겹, 누비의 경우가 있고 겹으로 드러내기도 하기 때문에 화려한 소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속바지 구조가 바지통이 넓고 부리가 좁기 때문에 밑단에만 누비거나 힘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형태를 유지하기도 한다. 살창고쟁이는 허리부분의 살창이 통기성을 높여 여름에 시원하게 할뿐만 아니라 허리의 주름분이 없어 바지통이 넓어져 바지의 실루엣을 두드러지게 한다. 누비속바지는 겨울에 보온의 역할뿐만 아니라 바지의 형태를 만든다.

단속곳도 홀, 겹, 누비의 방법이 있는데, 주로 홀으로 건종류의 좋은 감을 사용한다.

속치마류인 무지기와 대슴치마는 형태유지를 위해 뽀뽀한 감인 모시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속옷의 기능을 위해 속옷의 구조에서는 트임에 의해 착용시에도 개방된 상태로 존재하였고, 속옷의 접촉에 따른 마찰정도에 따라 바느질을 달리 한 것과 계절에 따라 소재와 구성에서 차이를 두었다.

## 2. 미적 특징

### 1) 은폐성(隱蔽性)

조선후기 여자속옷은 겹겹이 바로 전 착용 속옷을 가리면서 착용되어 최종적으로 겉옷의 실루엣을 형성한다. 은폐 즉 “뿔여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으로 복식의 아름다운 외형을 추구하는 것이

다.

속옷의 은폐성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유교의 영향으로 비롯된 것으로 즉 여성복식에서 인체(人體) 부위의 직접적인 노출(露出)이 적고, 여러 겹을 착용하는 속옷과 인체의 굴곡(屈曲)을 드러내지 않는 형태는 유교적(儒教的)인 금욕성(禁慾性)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규수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서는 여자복식제도에 관하여 많은 의복 착용에 의한 사치성(奢侈性)과 비 활동성을 부당하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당시 여성들은 통제된 생활의 영향으로 비활동적인 의복을 착용하였던 것이다. 외출과 사회적 활동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여자들의 복식은 더욱 폐쇄적이었고, 이는 은폐성의 추구로 더 많은 속옷을 착용하여 비활동적인 복식 형태로 나타내게 되었다. 부녀자들이 속치마를 많이 끼어 입어 5-10여개씩 끼어 입었다고도 하여 얼마나 많은 속옷을 입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피부위생과 신체의 보호, 의복의 형태유지, 속옷의 성적인 사용, 계급 구별의 방법이라는 속옷의 기능<sup>40)</sup> 중에서 의복의 형태유지로서의 기능이 강화된 조선 여자속옷의 은폐성은 성리학적 유교 관념과 부계적 가족 질서의 강조 속에서 여성의 생활 규제의 영향이 복식으로 나타난 일면이다.

## 2) 노출성(露出性)

노출(露出)은 “겉으로 드러남, 드러냄”으로 속옷의 노출은 속옷으로 신체를 대신하여 그 주의를 집중케 하여 성적매력의 요소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조선후기 여성속옷의 노출은 저고리의 간소화에 의한 인체의 노출과 허리를 강조하는 가슴띠의 착용, 치마 밑으로 드러나는 속바지에서 볼 수 있다. 상의인 저고리는 길이가 짧고 소매 폭이 좁아졌는데 이것은 인체를 의식하여 체형이 감지 되도록 한 형태이다. 인체를 의식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여 성적으로 유혹하려는 욕망(慾望)과 갈등에서 비롯된다<sup>40)</sup>고 볼 수 있다.

의복에서 노출은 상대가 인체를 인식하도록 인체선(人體線)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법과 인체를 과장하는 방법 그리고 속옷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조선후기 여자복식에서 저고리는 인체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소매통을 좁히고 품도



〈그림11〉 미인도 美人圖, 간송미술관 소장

줄였으며, 드러나는 가슴을 가슴띠로 가는 허리를 강조하면서 속옷을 노출하였다.

하의에서는 인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많은 속옷을 중첩(重疊)함으로써 “다산(多産)”을 연상하도록 둔부를 과장하고 속옷이 겉으로 보이도록 착용하였다.

이와 같은 노출이 양반녀와 기녀의 복식에서는 의도적인 노출로 나타나지만, 서민녀에게서 나타나는 노출현상은 활동의 편리를 위한 기능적으로 요구된 것이었다. 그 중 내외법(內外法)이 적용된 여성층과 노동을 해야하는 일반 서민사이에서 좀더 자유로운 복식을 누렸던 기녀층에서는 속옷을 노출(露出)과 은폐(隱蔽)라는 반대급부의 기묘한 배합으로 섹슈얼리티적인 효과를 높였다. 몸에 붙는 좁은 소매통과 가슴위로 올라오는 길이의 저고리와 향아리형의 볼룩한 치마를 끼어 입은 <그림11>에서는 이러한 복식을 보여주고 있다. 옷저고리가 주는 느낌은 가냘프고 좁은 어깨를 뻐시있게 밀착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 밑으로 바싹 조여 맨 저고리 고름 때문에 이 여인의 가슴 앞자락의 좁은 앞판은 두 줄기 주름이 갈 만큼 가슴이 연약하다. 이에 비하면 속옷을 끼어 입어 둔부(臀部)와 이를 중심으로 한 좌우 양편의 볼룩이 향아리만큼이나 강조된 모습을 보인다. 옷저고리의 밀착된 선 때문에 속치마가 주는 외적인 분위기는 여성의 시대적인 미의식을 강조하는 예로 보인다.<sup>41)</sup> 이러한 대비되는 복식현상은 에로틱 존(zone)이 허리 복식과 중요한 미적 관계에 대하여 Johansen은 허리<sup>42)</sup>를 기준으로 상의는 점차 가슴이 드러날 정도로 짧아지고, 하의는 넓고 풍성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박제가의 《북학의》에는 “적삼은 날이 갈수록 짧아지고, 치마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기만 하는데, 이런 모양으로 제사 때나 빈객을 대접할 때 행사하난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여 적삼이 작아지고, 치마 입는 모습이 벌어진 것을 지적하였는데, 속옷을 여러 벌 착용하기 때문에 살이 보이지는 않으나 안의 옷이 보이게 되는 부분적인 노출에 대하여 지적한 것이고, 홍대용도 “상의와 치마가 서로 가리지 못하고 바지 아래를 묶지 않아 살이 드러나는 데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여 저고리와 치마사이로 보이는 허리선과 치마 아래의 속옷의 노출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 V. 결론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17c 중반은 사회적으로는 유교(儒敎)의 이념이 정착된 시기이고, 경제적인 발전에 의해 국가적으로 풍요한 시대였다. 양반녀에게는 어느 때보다 정숙성이 강조되었고, 기녀(妓女)를 포함한 중인(中人)이상의 여성들은 좀더 자유로운 복식행동을 하였다. 당시 여자복식은 하체가 풍성한 형태를 이루어 속옷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의 하체를 부풀리는 실루엣을 형성한 여자 속옷의 종류와 구조를 고찰하여 당시 여성들의 속옷 문화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선후기 여자 속옷을 분류하면 상의(上衣)인 가슴띠, 속적삼, 속저고리와 하의(下衣)인 다리속곳, 바지류(속속곳, 속바지, 단속곳, 너른바지), 치마류(무지기, 대숨치마)가 있다. 이는 양반층을 기준으로 한 속옷이고, 이 중에서 노출된 속옷으로는 가슴띠,와 속적삼, 속바지, 단속곳이다. 이는 당시 속옷을 노출한 중인이하의 여성층의 속옷류이기도 하다.

가슴띠는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노출되는 가슴을 가리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기녀를 중심으로 착용되었고, 이는 허리를 노출하여 인체선을 드러낸 것이다. 속적삼과 속저고리는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함께 짧아졌으며, 속적삼은 여름에 겹옷으로 착용되어 적삼이 되었고, 속저고리는 겨울에 방한용 구실을 하였다. 다리속곳은 가장 기초가 되는 하의면서 월경포는 여성의 필수 속옷이다.

속속곳은 피부와 접촉면이 많아 통기성과 흡습성이 좋은 삼베와 무명을 주로 사용하며, 속바지 안에 착용되어 실루엣을 형성한다. 속바지는 가장 계절에 따른 다양한 구성으로 훌바지, 겹바지, 누비바지, 살창고쟁이 등이 있으며 모든 여성들이 착용했다. 넓은 바지통과 부리로 좁아지는 곡선형 배래는 둔부(臀部)를 부풀린 실루엣을 형성했다. 단속곳은 서민층에서는 치마 밑에 착용하기도 했으며,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한다. 너른바지는 양반층의 예장용 바지로서 바지통이 매우 넓다. 속치마로 무지기와 대숨치마가 있는데, 모두 예장용으로 치마 길이가 다른 무지기 치마는 둔부를 부풀릴 뿐만 아니라 단에 염색을 하여 아름다움을 더했다. 대숨치마는 가장 겉에 착용되어 속옷의 실루엣을 정리하고 단에 백비를 대어 아랫단을 퍼지게 하였다.

이러한 조선후기 여자속옷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능적으로는 속옷의 트임을 가진 구조와 속옷의 제작시 사용된 다양한 바느질법과 그리고 계절에 따른 소재와 구성에서 나타나고, 미적으로는 유교사회에서 인체선을 감추고 겹겹이 착용하여 형성된 은폐성과 노출된 속옷으로 인체의 간접적인 선을 강조한 노출성으로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 경제의 발전은 계층이동이란 사회 변화에 따라 여성도 함께 변화하게 하였다. 당시 양반녀보다는 자유로운 복식행동을 할 수 있었던 여성들이 그들의 복식을 통해서 미적으로 자신을 표현했던 것이다. 점차 유교사상의 정숙성을 요구받았던 여성들도 그들의 착장형태를 따랐다. 속옷을 많이 착용하여 나타나는 실루엣은 장자계승이란 남아선호사상의 상징인 둔부를 부풀리는 형태이며, 이는 비활동적인 옷이다. 그러나 이러한 착장을 하면서도 치마를 걷고 속바지를 드러내어 활동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리로 좁아지는 속바지는 당시 에로틱의 요소라 할 수 있다.

서양복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속옷은 겹옷일 수 있으나, 시대의 상황과 관점에 따라 우리나라 속옷은 당시의 속옷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하였다. 서양속옷이 겹옷화 되는 현대에 우리나라 전통의 속옷 또한 겹옷화 되어 활용된다면,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기능적, 미적으로 우수한 디자인으로 탈바꿈하여 우리옷의 또 다른 면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박춘순 (1991). *바지*. 중앙대박사학위논문; 김선우 (1997). *한국 여자 내의 문화에 관한 연구*. -바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5).
- 2) 김혜진 (1988). *한국여성 친의류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석사학위논문; 이주원 (1990). *우리나라 서민녀의 일상복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 (조선조 말~1950). *가정학회지* 28(4); 고부자 (1986). *제주도 여인의 속옷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한국복식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 3) 지난 2000.09.22-09.24 COEX 컨벤션홀에서 (주) 좋은사람들이 후원한 “세계속옷역사전”의 한국복식관련 속옷을 인하대 한국복식연구실에서 고증 제작함.
- 4) Calasibetta, C. M. (1988).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2nd ed.* Fairchild Pub. N.Y.
- 5) Willett, C. & Cunnington, P. (1992).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Pub, pp.12~13.
-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찬부 편집 (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웅진출판, p.829;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 편 (1996). *두산세계백과사전 15*. 두산동아, p.543; 동서문화 (1995). *한국세계대백과사전 15*. 서울: 동서문화, p.864; 김영숙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p.248.
- 7) 김영숙 (1998). *Op. cit.*, p.248.
- 8) 유희경 (1983). *韓國服飾史研究*.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499.
- 9) 임우근 준 (2000). *전통적 여성 이미지의 재해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8.
- 10) 유희경 (1983). *Op. cit.*, pp.499-500.
- 11) 심재기 (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p.81.
- 12) 이경자 (1983). *한국복식사론*. 일지사, p.31.
- 1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저 (1970). *한국문화대계*. 7: *풍속예술사(상)-한국복식사*; 김동욱 저.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p.31.
- 14) 유희경 (1982).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p.213.
- 15) 박춘순 (1998). *바지의 문화사*. 민속원, p.249.
- 16) 박주애 (1990). *우리나라 서민녀의 일상복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조선조말~1950년대). *대한가정학회지* 28(4), p.11.
- 17) 당(檔)
- 18) 조효순 (1986). *조선후기 복식의 풍속사적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03.
- 19) 김영자 (1986). *한복의 트임에 관한 연구* 제5회 아시아 복식학술회의 발표 논문초록. *복식* 10, p.94.
- 20) 박춘순 (1998). *Op. cit.*, pp.250-254. *안동대박물관 관도록* 1 (1996). *안동지역전통복식*. 안동대박물관, p.107.
- 21) 박춘순 (1998). *Op. cit.*, pp.250-254.
- 22) *안동대학교 박물관 관도록* 1 (1996). *Op. cit.*, pp.106-107.
- 23) 김경자 (1976). *우리나라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6-47.
- 24) 유희경 (1983). *Op. cit.*, p.498.
- 25) Willett, C. & Cunnington, P. (1992). *Op. cit.*, pp.33-34.
- 26) 石山彰 (1982). *服飾辭典*. 東京: David Co., p.496.
- 27) *안동대박물관관도록* 1 (1996). *Op. cit.*, p.107.
- 28) 박성실 (1984). *한국사* 25. 국사편찬위원회, p.320.
- 29) 조효순 (1986). *Op. cit.*, p.304.
- 30) 유희경 (1983). *Op. cit.*, p.492.
- 31) 유희경 (1982). *Op. cit.*, p.214.
- 32) 유희경 (1983). *Op. cit.*, pp.483-485.
- 33) 이능화 (1977). *朝鮮女俗考-朝鮮女子服裝制度*. 한국학연구소. 第十八章.
- 34) 유희경 (1983). *Op. cit.*, p.485.
- 35) 유희경 (1982). *Op. cit.*, p.214.
- 36) Payne, B. (1965). *History of Costume*. N.Y: Happer & Row. Pub, p.378.
- 37) 김영자 (1992).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p.76.
- 38) Willett, C. & Cunnington, P. (1992). *Op. cit.*, pp.14-18.
- 39) Valerie Steele (1996). *Fetish : fashion, sex, and 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25.
- 40) 정이순 (1981). *조선조 후기 여성복식과 개정논의*

박규수의 「내복편」을 중심으로. 복식4, p.8.

41) 복식과 중요한 미적 관계에 대하여 Johansen은 허리, 어깨, 목으로 보았다. 石山彰 (1983). 복식미학·복식 의장학. 동경: 光生館, p.163.

42) 이규경 (1977). 五洲衍文長箋散稿-홍대용 (1731-1783)의 견정필담을 인용. 민족문화추진회, p.106.